

대학신문 보도를 통해 본 대학도서관의 활동 변화

Activity Change of University Libraries in Terms of the Reports of University Newspapers

이 철 찬(Cheol-Ch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대학신문 기사의 분석 |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간행시기 구분 |
|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2. 연도별 신문기사의 특성 |
| II. 대학신문에 대한 이론적 배경 | 3. 연도별 주요 기사 |
| | IV. 결 론 |

초 록

이 연구는 대학신문에 보도된 도서관에 관한 기사를 분석하여, 그 당시에 대학도서관이 담당했던 역할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60여 년간 P대학에서 간행한 신문을 대상으로 대학도서관과 관련된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그 결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기사의 내용도 많이 변화하였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냉철한 자세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도서관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운영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대학신문, 대학도서관, 신문기사, 보도, 홍보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rticles reported on university newspapers and figures out what roles they played in those days and how they have changed up to now. For this, it selected newspapers issued at P university for the last 60 years and examined and analyzed every article related to university libraries in them.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have been changed dramatically as time goes by. The study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foundational data for the operation of university libraries or their long-term development projects as we reflect ourselves rationally and face reality and establish desirable future-oriented library features.

Keywords: University Newspaper, University Library, Newspaper Article, Report, Publicity

* 부산대학교 도서관 사서(cclee@pusan.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1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신문은 대학의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와 내용들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대학의 언론매체로서 대학발전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대학의 역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그 속에는 희망과 비전, 고뇌 등 대학이 걸어온 발자취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공존하고 있는 각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올바른 가치 정립과 시대를 대변하고 젊음을 상징하는 용기와 슬기를 표현하는 기능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학신문의 활동들이다.¹⁾ 대학이 걸어온 길인 대학의 역사는 본질적으로 당대의 교육사인 동시에 학문의 발전사이며, 학생들의 활동사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대학신문은 원래가 대학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탄생하였다. 학교 교비를 주로 재원으로 하고 대부분의 매체들이 총장 부속기구나 학생처 산하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은 대학 홍보매체로서의 전형적인 편제이다.²⁾ 그러므로 대학도서관에서도 도서관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까지도 기사화 한다면 홍보수단은 물론, 대학신문 기사를 통한 도서관의 관심도도 높아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요한 역사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P대학교는 1945년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난 광복의 감격 속에서, 그 이듬해인 1946년 5월 개교하였다. 그 후 국립대학으로서의 기틀도 마련되기 전에 한국전쟁을 겪었고, 196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대학 통합이라는 정책에 따라 합침과 나눔의 아픔을 겪었으며, 1970년대에는 유신정권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함성소리로 엄청난 정치적 변화의 도화선이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는 연구하는 대학, 기여하는 대학, 세계속의 대학을 지향하였고, 1990년대에는 지역 중핵대학으로서 세계로 향하는 비상의 터전을 닦았으며,³⁾ 2000년대에는 세계화라는 기치아래 변혁과 도약을 하고 있다.

이 같이 많은 변화를 겪은 대학의 모습은 당시에 간행된 대학신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은 그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이 필요로 했고, 또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사상과 철학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대학신문은 역사로서도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모든 신문은 그 시대와 사회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신문은 그 시대와 사회를 들여다보는 데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P대학교에서 간행된 대학신문들 중 도서관과 관련된 기사를 상세히 조사·분석하여 대학도서관의 지난 60여 년간 발자취를 돌아보고 우리 도서관이 담당했던

1) 장영인, “대학신문 스포츠기사 분석 연구,” 순천대학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제9집(1990), p.198.

2) 최낙진, “뉴미디어시대 대학신문의 매체 성격에 관한 연구,” 언론연구, 제6권, 제1호(1997), p.192.

3)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오십년사(부산 : 세종문화사, 1997), p.3.

역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결과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도서관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운영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이 연구는 P대학교에서 간행한 대학신문으로 제1호(1957년 3월)부터 1350호(2007년 12월)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신문 중 제1호부터 제1168호(1999년 2월)까지는 축쇄판을 사용하였고, 축쇄판이 간행되지 않은 1999년 3월(1169호)부터 2007년 12월(1350호)까지는 일반신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범위와 제한점으로는 지나간 대학도서관의 역할을 파악하려면 우리나라 대학신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겠지만, 지역 센터 대학인 P대학교 도서관으로 한정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에 일반화 시킬 수 없으며, 특정 이슈나 내용의 분석보다는 지나간 기사에 국한된 내용에 관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또, 대학신문의 제1호(1957년 3월)가 발행되기 이전의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고, 업무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문에 기사화 되지 않은 일부의 내용도 포함하였으며, 결호가 있는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가 찾지 못한 기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신문기사에 대한 완전한 파악이라고 할 수는 없다.

II. 대학신문에 대한 이론적 배경

대학언론으로는 크게 학보(신문), 교지(잡지), 방송의 세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대학언론의 핵심은 역시 학보, 즉 대학신문이다. 대학신문은 전국 130여개 대학에서 약 250만여 부가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발행 부수만으로도 대학신문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으며, 특히 한국의 무시할 수 없는 비판세력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더 무시할 수 없다.⁴⁾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가진 대학신문은 대학사회에 있어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에 기초를 둔 대학인의 사기와 교양을 높이는 매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통 일반신문의 경우에는 보도에 의해 그 역할이 끝난다고 하겠지만 대학신문은 전 대학인의 사기 향상이 최상의 목표가 되며, 교육이나 세뇌의 역할도 아울러 요청하게 된다. 그러므로 대학신문의 교육성이라 함은 대학인의 알 권리를 계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갖추어 건전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그 소지를 배양하는데 있다고 보겠다. 일반신문은 사실의 보도, 해설, 비판은 하지만 방향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학신문은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납득시킴은 물론 분

4) 이효성, “대학언론의 현황과 과제,” 대학교육, 1-2월호(1998), p.10.

발하도록 까지 격려하며,⁵⁾ 홍보용으로도 사용된다.

대학에 있어서의 홍보활동의 내용은 대내홍보와 대외홍보로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대내홍보는 대학 자체 내의 구성원들이 학교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대외홍보는 전 대학인의 커뮤니케이션인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의 원리를 기초로 둔 대학신문을 퍼블리시티의 역할을 담당시켜 대학과 일반사회와의 공간과 거리를 좁히는 것이다.

대학 내의 홍보활동은 공간과 거리에 있어서 조직적인 활동이라 하겠다. 조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대외적인 공간과 거리에 있어서 조화적인 적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적응이 이루어지려면 거기에는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의견 및 정보의 교류가 요청된다. 이 자유로운 의사교류로서 호의호감의 전체적인 일치와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것을 홍보활동의 과정이라 한다.⁶⁾

이처럼 대학신문은 대학 구성원들의 공동 이익과 대학발전에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으며, 학문 연구, 대학 문화의 창출과 표현, 창조성과 실험정신이 그 생명으로 일정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구성된 대학사회를 동질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적 공익성을 추구하는 공기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지니고 있다.⁷⁾

Ⅲ. 대학신문 기사의 분석

P대학교에서 간행한 대학신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시기적으로 구분하고 둘째, 연도별 신문 기사의 특성을 살펴본 다음 셋째, 주요 기사와 내용을 분석하여 업무흐름과 특이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보도된 내용 중 주요 기사만 분석하였고, 일반적인 기사는 참고자료와 통계로만 사용하였다.

1. 간행시기 구분

대학신문의 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기구분이 중요하다. 시기구분은 기관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시기구분은 기관 자체의 발전과정과, 정치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P대학교 도서관의 변화과정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적절한 시기구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자는, 도서관은 대

5) 이준구, "대학내의 홍보기능과 대학신문의 역할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논총, 제1집(1977), pp.55-56.

6) 상계논문, pp.52-53.

7) 한영목, "대학신문의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제24집(1997), p.24.

학의 지원시설이기 때문에 P대학교 50년사⁸⁾와 60년사⁹⁾에서 구분되어진 시기를 참고로 하여 10년을 주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발전과정과 시기구분 및 P대학교에서 간행된 대학신문의 현황은 <표 1>, <표 2>와 같다.

<표 1> 발전과정과 시기구분

발전과정	년 대	년 도
대학의 여명시기와 대학도서관	1950년대	(1957년 - 1959년)
대학의 성장시기와 대학도서관	1960년대	(1960년 - 1969년)
대학의 발전시기와 대학도서관	1970년대	(1970년 - 1979년)
대학의 발전시기와 대학도서관	1980년대	(1980년 - 1989년)
대학의 도약시기와 대학도서관	1990년대	(1990년 - 1999년)
대학의 비상시기와 대학도서관	2000년대	(2000년 - 2007년 12월)

<표 2> P대학교 간행 대학신문 현황¹⁰⁾

권	호	년 도
제1권(축쇄판)	제1호 - 제391호	1957년 - 1968년
제2권(축쇄판)	제392호 - 제501호	1969년 - 1971년
제3권(축쇄판)	제502호 - 제714호	1972년 - 1977년
제4권(축쇄판)	제715호 - 제872호	1978년 - 1983년
제5권(축쇄판)	제873호 - 제956호	1984년 - 1988년 6월
제6권(축쇄판)	제957호 - 제1027호	1988년 8월 - 1991년 12월
제7권(축쇄판)	제1028호 - 제1087호	1992년 2월 - 1994년 11월
제8권(축쇄판)	제1088호 - 제1129호	1995년 3월 - 1996년 12월
제9권(축쇄판)	제1130호 - 제1168호	1997년 3월 - 1999년 2월
-	제1169호 - 제1350호	1999년 3월 - 2007년 12월

2. 연도별 신문기사의 특성

가. 기사 구분

연도별 보도된 기사의 구분은 <표 3>과 같이 8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신문에 보도된 제목을 중심으로 주제 구분하였다. 이용, 통계는 도서관의 이용, 도서관 이용현황, 열람통계 등이며, 독서관련은

8) 상계논문.
 9)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60년사(부산 : 세종문화사, 2006).
 10) P대학교 신문사는 1954년 11월 25일 창간되었으나, 부정기적으로 발행된 신문이 다수 있으므로 이를 모두 묶어서 67호를 통합지령 제173호로 책정하였으며, 1957년 3월 20일자를 제1호로 호수 매김 하였다(제2권 축쇄판, 목차 1961년 13 - 15쪽 참조).

독서관련 행사, 독서실태 분석, 독서좌담회 등 각종 독서에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기증은 각종 도서의 기증에 관련된 내용이며, 장서는 장서확충운동, 장서확보, 장서통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내, 소식은 도서관의 각종 행사, 열람증 발급안내, 시설이전이나 설치안내, 개관시간 등 모든 안내와 소식을 포함하였으며, 독자의 소리는 시설이나, 환경, 도서, 열람실이용 등 주로 도서관 이용의 불편한 내용들을 요구하는 소리들이 주를 이루었다. 시설, 장비는 시설설치, 도서관건축, 도서관개관, 보수공사, 사물함설치, 전산장비 도입 및 설치 등 시설이나 장비와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하였으며, 도서구입은 도서구입비, 희망도서신청 등 도서구입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나. 연도별 기사 특성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연도별 신문기사의 특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연도별 기사의 특성으로는 <표 3>과 같이 1957년 3월(제1호)부터 2007년 12월(제1350호)까지로 도서관과 관련된 기사 수는 총 543개였으며, 그 중 1950년대에는 21개의 기사가 보도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통계와 독서관련 기사가 많았으며, 소장도서에 관한 안내, 열람시간 안내와 중앙도서관 신축으로 인한 시설에 관련된 내용 등이 주요기사로 보도되었다.

<표 3> 연도별 보도된 기사 수

연도 \ 기사	이용, 통계	독서관련	기증	장서	안내, 소식	독자소리	시설, 장비	도서구입	계
1957 - 1959	6	4	1		5	1	4		21
1960 - 1969	2	15	3	3	42	14	12	2	93
1970 - 1979	13	9	25	9	16	1	25	8	106
1980 - 1989	15		6	4	22	16	21	7	91
1990 - 1999	8		2	1	51	37	30	2	131
2000 - 2007	7		1	4	33	36	18	2	101
계	51	28	38	21	169	105	110	21	543

1960년대에는 93개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그 중 독서와 관련된 기사가 15개로 비교적 많았다. 독서관장을 위한 앙케이트, 도서전시회, 독서좌담회개최(제219호, 1963. 10. 11)와 독서를 생활화 하자는 총장의 담화문(제247호, 1964. 10. 1)도 있었으며,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총장이 일일 도서관장직을 수행(제218호, 1963. 10. 1)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독서를 상당히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장서확충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총장이 주례의 사례로 책을 선물 받아 도서관 장서로 기증(제404호, 1969. 5. 12)한 것으로 보아 장서확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기증에 관한 기사가 시설, 장비와 더불어 25개로 가장 많았다. 기증자에 관한 문고기 설치(제446호, 1970. 6. 22)¹¹⁾ 되는 등 10만권 장서확충을 위해 각계에서 기증운동에 동참하였

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앙도서관 신축과 관련하여 시설관련 기사도 비교적 많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에는 관외 대출증 폐지, 대출권수 및 시간 연장, 입관제도 변경, 도서비 대폭증액, 개관 시간 연장, 기본도서실 개관 등 주로 이용자 측면에 관한 기사가 많았으며, 이것은 도서관 개혁운동(1987. 7 - 1989. 2)과 더불어 이용자에 관한 서비스의 내용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도서관시스템이 자동화로 변화되는 시점으로 전산화작업을 착수(1991. 2)하였으며, 이후 학술정보시스템(PULIP)을 가동(1996. 5)하였고 멀티미디어실을 개장(1997. 4)하는 등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인한 시설장비에 관한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990년대에는 자료관리 및 시스템이 전산화로 탈바꿈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의함 설치, 흡연근절, 열람실 시간 연장, 자리독점, 사물함설치, 의자교체 등 이용자 편의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용자 중심으로 탈바꿈하는 시기였다고도 볼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학술DB를 교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2004. 1)하였으며, WDL(Wireless Digital Library)을 구축(2004. 6)하였고, dCollection 사업 활성화 시범교로 선정(2005. 5)되었다. 이후 좌석배정시스템을 설치(2006. 3)하였고, 전산화 시스템인 XMLAS를 도입(2006. 10)하였으며,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2007. 1)과 자동반납기를 설치(2007. 10)하는 등 첨단 통합형 전자도서관을 구현하였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구현과 더불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관한 기사도 많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도서분류법을 통합(제1189호, 2000. 3. 14)하였고, 도서관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새로운 의자 교체, 모바일캠퍼스 구축, 독서치료프로그램 실시, 24시간 도서반납, 자료실 공휴일 개방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연도별 보도된 기사 면의 변화

대학신문의 기사는 대체로 1면(종합), 2면(보도), 3면(심층기획), 4면(취업) 등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하지 않으므로¹²⁾ 어느 면에 보도되는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진다.

〈표 4〉와 같이 1970년대 까지는 주로 1면, 2면, 3면에서 도서관에 관한 내용이 기사화 되었으나 1980년대부터는 여러 면에서 골고루 기사가 실린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 관한 기사가 특정 면에 실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총장이 기증한 도서로 지양문고 설치.

12) P대학신문 A기자와의 전화 통화(2008. 9. 19).

〈표 4〉 연도별 보도된 기사 면 현황

연도 \ 기사	1면	2면	3면	4면	5면	6면	7면	8면	9면	10면	11면	12면	13면	15면	17면	계
1957 - 1959	19	1	1													21
1960 - 1969	58	4	28	2	1											93
1970 - 1979	75	5	20	1	3	1			1							106
1980 - 1989	58	2	4		1	1	18	2			4			1		91
1990 - 1999	32	33	17	6	9	12	7	8	2	4					1	131
2000 - 2007	20	35	12	3	9	3	4	1	6	1	4	1	1	1		101
계	262	80	82	12	23	17	29	11	9	5	8	1	1	2	1	543

위의 특성을 바탕으로, 대학신문의 기사를 통해 본 연도별 도서관의 주요 기사내용과 업무흐름 및 특이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연도별 주요 기사

가. 대학의 여명시기와 대학도서관 : 1950년대(1957년 - 1959년)

1946년 5월 15일 P대학교 개교와 동시에 직제에 따라 사무국 산하에 도서관을 설치 개관하고, 1953년 4월 3일 대통령령에 의하여 종합대학교로 승격됨에 따라 'P대학교 부속도서관'이라 하였다. 이것이 P대학교 부속 도서관의 창시이다.

P대학교 신문(대학신문)은 1957년 3월 20일에 제1호를 발행하였으나 제1호에는 도서관에 관한 기사가 없었으며, 도서관에 관하여 최초로 보도된 기사는 1957년 5월 16일(제2호)의 '본교도서관 소장 고도서의 분류 및 이용에 대하여'이다. 당시의 대학신문 기사는 주로 도서관 소식이나 안내에 관한 내용이었으며, 열람시간 안내, 도서의 이용, 도서관이용 통계 등이 주를 이루었다.

1950년대(1957-1959)에는 총 21개의 기사가 보도되었으며, 주요 신문기사는 〈표 5〉와 같다.

〈표 5〉 195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1957. 5	본교도서관 소장 고도서의 분류 및 이용에 대하여	대학신문에 보도된 도서관에 관한 최초의 기사로, '정리 중이던 고도서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과 고도서의 총목록을 소개하고 있다.
1958. 10	1학기 동안의 출입상황	1958년 10월에 지난 1학기 동안의 출입상황을 게재하였다. 최고 출입자는 45회로 74권을 대출하였으며, 20위까지를 발표하였다.
1959. 10	의과대학 분관 도서관개관	1959년 10월 의·치대 구성원들의 연구 지원을 위하여 의과대학 분관 도서관을 개관하였다.

나. 대학의 성장시기와 대학도서관 : 1960년대(1960년 - 1969년)

미비한 시설로 인하여 임시건물을 사용하다가 1966년 4월 25일 도서관을 신축 개관하여 독립 건물로 사용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오랫동안 바라던 신축도서관에 대한 설계는 공과대학 건축과 교수 및 경리과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단의 공동설계로 1963년 6월에 착수하여, 1966년 5월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맞아 개관하였다.

개관 후부터 1970년까지 도서관 활동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서 정리 작업과 장서확충계획이었다. 분류사무의 미비로 사장되어 있던 고서 정비작업은 도서관 소장 고서 일만여 권의 분류·정리를 1967년 여름부터 착수하여 1968년 10월에 끝을 맺었다.

그러나 장서가 많이 부족하여 1966년 6월에 장서확충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목표권수 38,000권을 채우기 위하여 5년에 걸쳐 장서 10만권 확충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개교 25주년까지 5년간 장서를 10만권으로 끌어올리자는 계획이었다.

장서확충 운동과 아울러 독서에 관해서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대학당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총장이 독서에 관한 담화를 발표하는가 하면, 도서관에서도 독서와 관련한 각종 행사를 주관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위 내용과 같이 60년대의 대학신문은 도서관건립, 장서확충과 독서운동 등을 강조하였다.

기타 기사로는 1964년 5월에 도서관장(의대분관장) 임명 소식이 최초로 기사화 되었으며, 같은 해 7월에는 신축도서관내 기사가 처음으로 신문에 보도되었다. 또 대외적인 사업으로 1964년 7월에 6개 국립대학의 도서관장 회의가 부산대학에서 열린다고 하였다.

1960년대의 주요 신문기사 내용은 <표 6>과 같다.

<표 6> 196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1963. 8	도서열람규정 변경 - 분실 시 배상 등 엄격히 실시	1963년 8월에 열람규정을 변경하여 도서를 분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학장 또는 당해 학과 주임이 각각 변상의 책임을 져야하며, 규정을 위반하면 총장에게 징계를 상신할 수 있다. 또 반납기일 경과 시 1권에 1일당 10원씩의 연체료를 징수하고, 분실 시에는 현 시가의 두 배를 변상 받는 동시에 1년간 도서 대출을 정지하며, 대학신문에 이를 공고한다.
1963. 10	총장이 일일도서관장직 수행	1963년 10월 1일에는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신기석 총장이 일일도서관장직을 수행하였다.
1966. 5	신축도서관 이전개관	공과대학 건축과 교수 및 경리과 건축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설계단의 설계로 1963년에 착공한 신축도서관이 완공되어 이전 개관 하였다.
1966. 6	장서10만권 확충운동 전개	1966년 6월 장서확충 추진위원회가 발족하여 목표권수 38,000권을 5년에 걸쳐 구입 또는 기증받자는 계획을 세웠다.
1968. 4	도서전시회	미공보원에서는 1968년 4월 8-9일, 양일간 본교 도서관에서 도서전시회를 가졌다. 이것은 미공보원도서관에 비치되어있는 6천여 권의 영문서적, 5백권의 한국서적 및 2백권의 일본서적을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이다.
1969. 9	도서선정위원회 구성	1969년 9월16일 도서선정위원회의 첫모임이 도서관장실에서 열렸다. 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5명의 교수로 구성되었으며, 도서관장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면담시간을 마련하였다.

다. 대학의 발전시기와 대학도서관 : 1970년대(1970년 - 1979년)

1970년대에 들어서는 외부적으로 많은 정치적인 사건과 더불어 대학도서관도 실무적인 면과 공간구성적인 면 등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1971년에는 학술논문 색인집을 간행하였고, 이어 학술잡지 종합목록, 참고도서 색인집 등을 간행하여 열람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1973년도 3월부터 계속 사용해 오던 KDCP에 의한 분류체계를 새로운 KDC로 바꾸었다.

1974년에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점심시간에도 각종 업무를 실시하였고, 지양문고, 소열람실, 한서부, 과제도서관, 시습관, 시청각교육관, 교양도서실 등을 설치하는 등 공간구성과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또 이 시기에는 장서확충운동의 일환으로 기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1975년 11월에는 장서 15만권을 돌파하였다.

1970년대의 주요 신문기사 내용은 <표 7>과 같다.

<표 7> 197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1970. 3	방학 중 대출 중단	1970년 3월 9일자 신문에는 방학 중에 장서점검 및 목록비교를 위해 도서 대출을 중단한다고 하였다.
1970. 6	지양문고 설치	1970년 6월에 신기석 총장이 기증한 책만으로 구성된 지양문고를 설치하였다.
1970. 6	의대도서관 개축개관	1970년 6월에 예산부족과 시설미비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의대분관을 독지가의 찬조(7명으로부터 50만원)로 개축개관 하였다.
1971. 1	도서관 장서 10만권 돌파	1971년 1월1일자 신문에는 1970년대 말 장서10만권을 돌파 하였으며, 도서 확충사업 유공자 4명(기증자)에 감사장을 수여하였다.
1971. 1	도서관에 시계 설치	1971년 11월에 효원인들의 시간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학생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에 시계를 설치하였다. 이것은 시계가 없어 효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번에 도서관 3층 옥상과 열람실에 대형 전자시계를 설치하였다.
1970. 7	도서관 장서점검	1970년 7월6일부터 8월5일까지 장서점검을 실시하였다. 도서관직원과 학생도서관인 기린회 회원들의 협조를 실시하였다.
1973. 3	분류체계 변경	1973년 3월부터 종래에 사용하던 박봉석 KDCP에 의한 분류를 새로운 KDC로 바꾸어 시작하였다.
1973. 5	전자복사기 도입	1973년 5월부터 본교생들의 학습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는 전자복사기를 구입하여 참고열람실에 설치하였다.
1974. 3	관의 대출증 발급	1974년 3월11일부터 발급하는 관의 대출증은 신청서와 현금 등록영수증, 보증금 5백원을 제출하면 되는데 관의 대출증 소지자는 1주일간 관외대출 및 1주일의 연기혜택이 주어지며, 보증금은 졸업 시에 반환된다.
1974. 4	소열람실 설치	1974년 4월4일에 지하층의 자유열람실 뒤편에 소열람실(수용인원 40명)을 마련하였다.
1974. 9	한서부 설치	1974년 9월1일에는 기증 등으로 인한 한서의 증가로 사서실내에 한서부를 독립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1974. 8	입관증제 실시	1974년 8월19일부터 도서관정문에서 학생증을 보관하고 입관증을 교부받아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입관증 제도를 실시하였다.
1974. 9	교재 외 서적 대출 제한	1974년 9월부터 관의 대출서적은 종전의 모든 서적에서 교재에 한 하며, 교재 외의 서적은 관내대출만 허용하며, 대출기간도 1주일에서 3일간으로 단축하였다.
1974. 10	점심시간에도 업무 계속	1974년 10월 5일부터 도서관에서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이 당번제를 시행함에 따라 점심시간에도 대출 반납 및 각종 업무를 실시하였다.

1975. 2	직제 개편	1975년 2월에 국립대학 설치령 개정에 따라 수서과와 열람과 2부서로 직제개편을 하였다.
1975. 3	과제도서관 및 시습관 설치	1975년 3월에 과제도서관을 상대에 설치하여 학습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대, 사대, 문리대 학생들을 위해 본관 4층에 시습관이라는 열람실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1975. 11	장서15만권 돌파	1975년 11월에는 장서 15만권이 확보되었으며, 그중 기술과학 분야가 제일 많았다.
1976. 3	시청각교육관 설치	시청각교육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운영을 통하여 학습효과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7. 12	논문집·학회지 색인작업	1977년 12월19일부터 도서관 참고열람실에서 1976년 9월 이후의 논문집과 학회지의 색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1978. 3	도서열람증 분실(광고)	1978년 3월 13일자 신문에는 도서열람증 분실에 관한 최초의 광고가 실렸다. 학번과 이름이 게재되어 있으며, 공고일 이후에는 무효라고 하였다.
1978. 9	교양도서실 설치	1978년 9월 1일 전국의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교양도서실을 설치하였다. 강의시간표에서 비는 시간을 재학생들이 교양습득에 선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된 64석 규모의 교양도서실은 문창회관 1층에 자리를 마련하였다.
1979. 5	과제도서실 개관	1979년 5월에는 공대생의 학습보충과 교양습득을 목적으로 공대 과제도서실이 개관될 예정이다.

라. 대학의 발전시기와 대학도서관 : 1980년대(1980년 - 1989년)

1980년대는 중앙도서관의 개관으로 인한 시설적인 발전과 더불어 내부적으로도 도서관 개혁운동을 맞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982년 9월에는 단과대학에 과제도서실을 개관함으로써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부족해진 도서관 좌석의 확보와 교수·학생들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해졌으며, 1983년에는 장서 30만권을 돌파하였고, 1986년 11월에는 40만권을 돌파하였다. 1984년 9월에는 구도서관을 개축하여 과학분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를 별도로 정리·보존하여 자료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1987년 7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에 의한 도서관개혁운동이 거세게 일어 도서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1980년대의 주요 신문기사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198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1980. 3	관외대출증 폐지	1980학년도부터 도서관의 관외대출증제도가 폐지된다. 지난 1974년 3월부터 실시된 후 책의 분실이 거의 없고 도서비의 대폭인상으로 그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1980. 9	중앙도서관 개관	1978년 12월 착공하여 계속되어온 중앙도서관 신축공사가 끝나 1980년 9월8일 개관하였다.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내부는 크고 작은 열람실과 참고도서실, 세미나실 등으로 이루어진다.
1981. 4	근로장학금제 실시	1981년 4월 26일 기사에는 금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학금제에 1백 7명이 선발되었다고 하였다. 지도교수 추천으로 선발된 이들은 저소득층 위주로 선발기준을 정하였으며, 1학기당 100시간을 일을 하고 1급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지급받는데, 도서관에는 서고정리에 20명을 배정받았다.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4호)

1981. 6.	과제도서관 폐지	1981년 6월 29일 자로 지금까지 수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상대 과제도서관은 각 단대와의 형평의 원칙에 따라 폐쇄되었다.
1982. 5	도서관입관제도 변경	1982년 5월 10일부터 도서관의 입관제도가 좌석번호제로 바뀌어 시행된다. 새로 시행된 좌석번호제는 각 열람실의 좌석마다 번호를 지정하여 도서관 입관 시 학생증을 맡기고 입관증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1982. 9	단과대학 과제도서관 신설	1982년 9월에 단과대학에 과제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졸업정원제의 실시로 부족해진 좌석의 확보와 이용자들에게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료제공이 가능해 졌다.
1983. 3	도서관개관시간 연장	1983년 3월 1일부터 이용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종전의 오전8시부터 6시로 두 시간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
1983. 5	장서30만권 돌파	1983년 5월에 장서 30만권을 돌파하였으나 법규상 규정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하였다.
1984. 9	과학분관 개관	1984년 9월 1일에 구도서관을 개축하여 과학분관으로 개관함으로써 자연과학 분야의 도서를 별도로 정리, 보존하여 자료이용에 편의를 제공하였다.
1987. 9	음향도서관 개관	1987년 9월 21일에 본교생의 외국어 능력향상과 외국문학 이해의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음향도서관이 현 도서관 2층에 개관된다. 70석의 열람실과 영어, 독어, 일어, 프랑스어 등의 오디오 및 비디오 등을 갖추었다.
1987. 7	도서관 개혁운동	1987년 7월부터 1989년 2월까지, 문헌정보학 전공학생들에 의해 주도 되었으며, 도서관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전문직상을 요구하였다.
1987. 9	기본도서관개관	1987년 9월 14일부터 중앙도서관에 기본도서관을 운영한다. 기본도서관은 폐가제 도서대출의 단점을 극복하고 도서관리 중심에서 이용 중심으로 전환되어가는 현재의 도서관 운영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1988. 3	부관장 제도 신설	1988년 3월에 신설한 부관장 제도는 전문가로 하여금 도서관의 장서개발과 자료조직을 통하여 도서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이다.
1988. 3	도서관 신축계획안 수립	1988년 3월 도서관 발전위원회는 현재 연구도서관(제1도서관)자리에 도서관을 신축하여 연구센터로 이용하고 학습도서관(중앙도서관, 제2도서관)은 학부도서관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1988. 3	동양자료 개가제 실시	본관소장 동양자료를 개가제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서양서와 고서는 건물구조 및 공간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중에 있으며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될 계획이다.
1988. 9	한국데이터통신과 DECOM-NET 이용 계약 체결	1988년 9월에는 미국 DIALOG(정보은행)사의 학술정보 이용검색 및 DIALCOM(전자사서함)을 통해 메시지 송·수신 업무를 시험과정을 거쳐 실시하였다.
1988. 9	도서관자료실 연장 개관	1988년 9월1일부터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실, 과학분관 자료실 등 일부자료실이 오후 10시까지 3시간 연장 개관된다.
1989. 4	도서관 소식지 발행	1989년 4월에 각종 도서관 소식과 도서관의 당면과제 등을 알리는 도서관 창간호를 내놓았다.

마. 대학의 도약시기와 대학도서관 : 1990년대(1990 - 1999년)

1980년대 후반부터 도서관개혁운동 등으로 인하여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고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전산환경 구축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구현에 주력하게 된다.

1991년 6월에는 공산권 관계의 특수자료에 관한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관리해오던 공산권관계의 특수자료 등을 도서관으로 이관하여 특수자료실을 개설하였으며, 1991년 2월에는 도서관 전산화작업에 착수하였고, 1996년 5월에는 지난 5년간 준비한 도

서관 전산화 사업의 작업들이 완료됨에 따라, 부산대학교 도서관 전산시스템인 풀잎(PULIP)을 가동하게 된다. 이로써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통합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되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정보검색 등도 이 시점부터 가능하게 되었다. 그 해 12월에는 법과대학 건물 3층에 법학도서관을 개관하여 법학 관련 자료를 비치 및 운영하게 되어, 1959년 10월에 개관한 의학도서관과 함께 주제도서관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1997년 4월에는 멀티미디어실을 개장하여 비도서자료인 영상과 그래픽 등 다양한 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와 학습도서관이라는 이원체제로 운영된 1994년 이후에도 도서관이 이용자보다는 관리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99년 1월에 구축된 주제도서관 시스템은, 대학의 전문화된 이용자들을 고려한 포괄적 개념의 주제도서관으로서 인문사회과학자료관, 어문학자료관, 과학기술자료관, 예체능자료관, 법학도서관, 의학도서관의 6개 주제도서관(Subject Library)과 M대학과의 통합으로 개관된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 서비스 체제는 기존의 자료 형태 중심의 서비스 체제에서 벗어나 이용자를 위한 능동적이고 수준 높은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맞추어 주제별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1995년에는 도서관장이 교무회의에 참가함으로써 도서관에 대한 위상이나 관심이 많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며, 1999년에는 4월에는 드디어 장서 100만권을 돌파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주요 기사는 <표 9>와 같다.

<표 9> 199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1990. 12	도서관 발전모임 상설화	1990년 12월 3일자 기사는 도서관의 제반문제 해결을 위해 문헌정보학과, 인문학부지위원회에서 도서관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학교측에서 10월경 수락함에 따라 이루어 졌는데 학생들의 각종 의견(건의함)을 수렴, 이의 수용여부를 주1회 공개하기로 합의하였다.
1991. 2	도서관전산화 작업 착수	1991년 2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에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전산망 구축사업계획에 의해 도서관 전산화 작업을 착수하였다. 대학도서관 학술정보 전산망은 IBRD차관을 도입하여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걸쳐 구축하는 장기적인 계획이다.
1991. 3	특별 열람증 발급	1991년 3월4일부터 대학원 석, 박사과정 수료(예정)자들도 각종 도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 열람증을 발급하고 있다.
1991. 6	특수자료실 개설	1991년 6월 공산권 관계의 특수자료에 관한 교수와 학생들의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개설되었으며, 이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거 열람만 할 수 있었으며, 대출과 복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1994. 9	신속도서관 개관 및 이원체제 운영	1994년 9월 1일 신속도서관이 개관함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연구도서관과 학습도서관이 이원화된 체제로 운영된다.
1995. 4	도서관장, 전산소장 교무위원회에 출원	1995년 4월 4일 열린 교무회의에서 도서관발전과 학내 종합 전산화 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학칙을 개정하여 도서관장과 전산소장이 학사행정 최고회의기구인 교무회의에 참가하는 교무위원회에 출원되었다.
1995. 10	학습도서관 옥상 휴게실로 개관	1995년 10월 26일 4개월간의 공사를 마치고 학습도서관 옥상의 옥상휴게실 개관식을 가졌다. 운수인 총장은 인사말에서 이 휴게실은 효원인 모두에게 귀중한 공간인 만큼 활용을 잘 해야 한다고 하였다.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4호)

1995. 11	도서관자치위원회 본격 활동	도서관자치위원회가 1995년 11월 20일 학습도서관 3층에 공간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자치위원회에서는 강제적인 의식개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여론을 형성해가며 도서관을 개선해 나가야겠다고 하였다.
1996. 5	학술정보시스템(PULIP)가동	1996년 5월 2일 총장, 교무위원, 역대 도서관장, 부산과 경남지역 도서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도서관 로비에서 도서관 학술정보시스템인 풀립(PULIP) 가동식을 가졌다. 이 시스템은 윈도우 3.1환경에서 윈도우 95환경으로 전환되는 등 시스템의 환경개선이 되었다.
1996. 9	구내전화 설치	1996년 9월 3일 학내에 구내전화가 설치되어 학생들에게 높은 호응을 보이고 있다.
1996. 12	법학도서관 개관	1996년 12월 26일 법학분관으로 개관하였으며, 주제전문도서관으로서 법학(법률)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학습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 서비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1997. 4	멀티미디어실 개장	1997년 4월 1일 학습도서관 2층 시청각 자료실이 멀티미디어 자료실로 변경되어 개방된다. 멀티미디어 자료실은 지난 95년 3월부터 마이크로 필름 검색기 등 새로운 정보매체를 수용하는 기자재를 도입해 온 시청각자료실이 비도서자료인 영상과 그래픽 등의 다양한 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확장된 것이다.
1997. 5	책 반납함 설치	1997년 5월 20일 학내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 직사각형 모양의 나무상자 3개를 만들어 학습도서관 1층 로비에 설치할 예정이다.
1998. 5	도서대출 예약제 실시	1998년 5월부터 대출중인 서양서에 한하여 도서예약제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1998. 8	UN 완전기타 도서관으로 지정	1998년 8월에 UN 부분기타 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1년 1월에 UN 완전기타 도서관으로 지정되어 UN 자료를 모두 소장·이용 할 수 있게 되었다.
1998. 9	지정도서제 실시	1998년 9월 1일부터 시작되는 지정도서제는 리포트 등의 과제를 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아도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 대출한 뒤에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1998. 10	대출기한 지난 책 연체료 징수(증지 구입)	1998년 10월 19일 연체료 징수규정이 제정되었다. 반납 기한을 초과하는 연체 도서가 증가하여 많은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연체 1책 1일 100원의 연체료(증지 구입)를 부과하여 도서 반납의 효과가 개선되었다.
1999. 1	대학사자료관 설치	잊혀지고 유실되고 있는 P대학교의 소중한 역사 자료를 보존하기 위하여 1999년 1월에 대학사자료관을 설치하여, P대학교의 역사적인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기록물로 보존하고 있다.
1999. 1	주제도서관 시스템 구축	1999년 1월 도서관 체제를 주제도서관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제1도서관에 과학기술자료관과 예체능자료관, 제2도서관에 인문사회과학자료관과 어문학자료관을 만들어 기존의 의학도서관, 법학도서관과 함께 6개의 주제도서관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1999. 4	제1, 제2도서관 등으로 변경	도서관 체제가 주제도서관 시스템으로 바뀜에 따라 도서관 건물명칭을 새로 정해 종전의 연구도서관을 제1도서관으로, 학습도서관을 제 2도서관으로, 과학분관(구도서관)을 자율도서관으로 각각 이름을 변경하여 1999년 4월 현판식을 거행 하였다.
1999. 4	장서 100만권 확보	1999년 4월에 장서 100만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서관에서는 5월 14일 장서 백만권 확보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장서 백만권은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 경북대에 이어 3번째이다.

바. 대학의 비상시기와 대학도서관 : 2000년대(2000년 - 2007년 12월)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도서관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양질의 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2000년 1월에는 분류체계를 DDC로 통합하였으며, 2001년에는 3개과로 운영되던 조직을 개편하여 슬림화 하였으며, 2007년 2월에는 또 다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위하여 조직을 팀제로 개편하였다.

2004년 1월에는 학술DB를 교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6월에는 WDL (Wireless Digital Library)을 구축하였고, 2005년 5월에는 dCollection사업 활성화 시범교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 3월에는 열람실의 만성적인 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좌석배정시스템을 설치하였다. 2007년 1월에는 도서관출입관리 시스템, 2007년 7월에는 자동반납기를 설치하였고, 2006년 10월에는 새로운 전산시스템(XMLAS)을 도입하여 새롭게 창출되는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원관리를 위한 미래형 전자도서관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2000년도 후반부터는 캠퍼스간 자료대출 실시, 윈스톱 서비스를 위한 전화설치, 대출자료 배달서비스, 독서치료코너 설치, 주제자료관 공휴일 개관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학술연구 정보를 제공하는 도서관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2000년대의 주요기사는 <표 10>과 같다.

<표 10> 2000년대 주요 기사

년 월	제 목	내 용
2000. 1	분류체계를 DDC로 통일	2000년 1월부터 분류방식을 DDC로 통합하였다. 그 동안 국내자료는 KDC(한국십진분류표), 외국자료는DDC(듀이십진분류표)로 나누어 분류 하던 것을 DDC로 통합하였으며, 2000년 1월 이후 정리된 자료는 국내서와 외국서를 가리지 않고 함께 배열하고 있다.
2000. 9	고전자료실 개선	2000년 9월 19일 기사에는 부산대학교 고전자료실이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에 이어 두 번째로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했다고 하였다. 이번 공사는 한지로 된 고전자료의 손상을 막기 위해 일반 서고와 달리 마룻, 단풍나무 등으로 벽과 천장, 바닥 등을 마감하였다.
2001. 9	도서관 조직 개편	수서과, 정리과, 열람과로 운영하던 도서관의 조직을 슬림화하여 2001년 9월부터 정보개발과와 정보운영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2. 8	도서관정책연구회 발족	2002년 8월29일 도서관 현장의 제반문제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도서관 직원으로 구성되어 발족하였다.
2003. 3	도서관정보운영과 최우수 부서 선정	2003년 3월 10일 기사에는 2002년도 부서목표 추진실적 평가에서 도서관 정보운영과와 총무과를 최우수부서로 선정하였다. 도서관 정보운영과는 주제도서관 이용에 대한 홍보비디오를 자체 제작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03. 12	도서관장서 150만권 확보운동 추진	2003년 12월 2일 기사에는 150만 장서확충 운동을 전개하는 광고가 실렸다. 목표량은 30만 권이며, 2003. 10. 1 - 2004. 12. 30일 까지 기간을 설정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4. 1	학술DB 교외접속 솔루션 도입	2004년 1월부터 학술DB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외접속 솔루션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2004. 3	자율도서관 캠퍼스샵 인수	열람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율도서관내 캠퍼스샵의 운영을 기존의 (주)KTF로부터 도서관에서 인수하여 학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4. 6	WDL(Wireless Digital Library) 구축	2004년 6월부터 모바일 도서관을 구축하여 핸드폰 또는 PDA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도서관의 각종 콘텐츠(모바일 학생증 발급, 각종DB 및 소장자료, e-Book검색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4. 10	우산이 없으면 도자위로 오세요 (우산대여)	2004년 10월 11일 기사에는 도자위에서, 갑자기 비가 내릴 때 우산이 없는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산 대여를 실시한다고 하였다. 도자위는 도서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구입한 100여개의 우산을 신분증만 맡기면 무료로 대여해 준다.
2004. 11	교수저작물 전시회	본 대학 교수진들의 개인 저작물 발굴과 홍보를 통해 개인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구성원들에게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 제1회 교수저작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2005. 5	dCollection사업 활성화 시범교 선정	2005년 5월 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주관하는 '웹기반 원문제출 및 DB구축 시스템'인 dCollection 사업 시범교로 선정되어 이를 운영하는 인력 1인(10개월간)을 지원받아 학내서 생산하는 학술정보의 수집과 유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4호)

2005. 9	휴대폰 이용 WDL 추가기능 서비스 실시	2005년 9월 1일 학사행정서비스가 추가된 WDL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휴대폰만 있으면 대출정보조회 및 연장, 희망도서조회, 개인정보관리 등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6. 2	CCTV 설치	2006년 2월 7일 기사에는 최근 학내 도난 사건이 잇따른 데다 건물당 1명의 경비원이 배치되어 있는 현재 구조로는 순찰공백 시간이 너무 많고 유동인구의 통제가 어렵다는 판단에서 제1, 2도서관, 자율도서관 등 14곳에 CCTV를 설치한다고 하였다.
2006. 3	좌석배정시스템 설치	2006년 3월 2일 기사에는 도서관의 가장 만성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리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열람실 내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이번 학기부터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2학기에는 정상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2006. 2	Window on America 코너 신설	2006년 2월에는 제2도서관 3층에 미국의 교육, 경제,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최신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Window on America 코너'가 신설 되었다.
2006. 4	캠퍼스간 자료대출 실시	2006년 4월 3일부터 P대와 M대의 통합(2006. 3)으로 인하여 M대학교 도서관이 P대학교 나노생명과학도서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 캠퍼스에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한해 캠퍼스 간 자료대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006. 5	원스톱 서비스 전화 설치(1800번 신설)	2006년 5월 1일 기사에는 도서관 이용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성심껏 도와 드리는 전화(교내전화 1800번)가 신설 되었으며, 제2도서관 1층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설치되어 있다.
2006. 6	웹을 통한 도서관 소식지 발간	도서관의 시설이용, 제공 서비스 및 연구, 학습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하는 등 도서관 홍보 및 마케팅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간하였다.
2006. 9	대출자료 배달 서비스	이용자들의 도서관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교수 및 장에 학생들에 한하여 대출자료(단행본)의 배달서비스를 실시한다.
2006. 10	파손도서 전시회	2006년 10월 2일 기사에는 대출도서 중 취급부주의로 인해 파손된 책을 전시한다고 하였다. 도서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학생들이 책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2006. 10	전산화시스템 XMLAS 도입	2006년 10월 'XMLAS'가 도입되면서 전자정보 서비스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유형의 교내·외 전자정보원들을 효율 적으로 수집, 관리, 서비스 할 수 있는 첨단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현하였다.
2006. 11	법학도서관 이전 개관	1996년 개관한 후 소장공간의 부족과 로스쿨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학도서관을 신축하여 이전 개관하였다.
2006. 11	독서치료코너 설치	도서관에서는 임시위주의 교육환경, 자기 자신의 문제, 타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등으로 인하여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내 학생들을 위하여 독서치료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독서치료코너를 설치하였다.
2007. 1	도서관 출입관리 시스템 도입	2007년 1월 1일부터 재학생들은 학생증 인증을 통해야만 제2도서관 출입구를 통과할 수 있다. 최근 도서관내에 노숙자 등이 출입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등 잦은 도난사고로 인해 출입자들을 선별하자는 취지이다.
2007. 2	팀 체제로 조직 개편	도서관 조직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공감하여 도서관의 조직을 팀체로 개편하였으며, 이는 도서관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2007. 3	부산대도서관 한국도서관상 수상	국가차원의 지식정보자원 관리 및 공유체계 구축에 선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관리에 있어 실용모형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독서치료프로그램을 도입 운영 하는 등 다양한 서비스 환경을 제공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2007. 3	유계문고 설치	이병혁 교수가 기증한 1,300여권의 고서와 300여점의 회귀 고문서, 고려시대 관련 일반단행본 등 7,000여점의 자료로 제1도서관 2층에 문고를 설치하였다.
2007. 5	주제자료관 공휴일 개관	2007년 5월 13일부터 학생, 교수들의 학습과 연구 활동의 지원 및 자료 활용 시간의 확대를 위하여 학기 중 공휴일에 주제자료관을 개관한다.
2007. 10	차동반납기 설치	2007년 10월 29일부터 도서관에 차동 도서반납기가 설치되어 24시간 책 반납이 가능하다. 차동반납기는 제1도서관과 제2도서관 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다.
2007. 11	도서관통계 현황집 발간	2007년 11월 16일 부산대학교 도서관 통계현황(2004 - 2007까지 최근 3년간)을 발간하였다. 통계현황은 업무와 이용자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 현황집 발간은 이번이 처음이다.
2007. 12	보존서고 설치	2007년 12월 증가하는 자료의 수장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현 제2도서관 1층의 일부공간을 밀집서고(이동서가 설치, 모바일)로 조성하여 자료의 수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보존서고를 설치하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학신문에서 대학도서관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를 중심으로 지난 60여 년간 발자취를 분석하여, 그 당시에 대학도서관이 담당했던 역할과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여 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를 연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50년대에는 주로 이용 및 통계와 독서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지난 한 학기 동안의 대학, 학년 및 개인별 도서관 출입상황과 월별 도서열람통계표 등을 작성하여 발표한 것으로 보아 도서관 이용과 독서가 대학차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에는 독서와 관련된 기사가 가장 많았다. 독서관장을 위한 앙케이트, 도서전시회, 독서좌담회개최와 독서를 생활화하자는 총장의 담화문도 있었으며, 독서주간을 맞이하여 총장이 일일 도서관장직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독서를 상당히 중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 장서확충사업의 하나로 총장이 주례의 사례로 책을 선물 받아 도서관 장서로 기증한 것으로 보아 이때부터 장서확충사업에 특히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에는 기증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보도되었다. 기증자에 관한 문고가 설치되는 등 10만권 장서확충을 위해 국내외의 각계에서 기증운동에 동참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증운동 등으로 인한 장서확충과 더불어 소장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중앙도서관 신축 등의 필요성으로 인한 시설관련 기사도 비교적 많이 보도되었다.

1980년대에는 개가제 실시, 관외 대출증 폐지, 대출권수 및 시간 연장, 입관제도 변경, 도서비 대폭증액, 개관시간 연장, 기본도서실 개관, 열람실 증설, 부관장제 신설 등 주로 이용자 측면과 도서관 운영내실화에 관한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보아 1980년대 후반에 있는 도서관 개혁운동과 더불어 이 시기부터 이용자에 관한 서비스의 내용들이 점차 바뀌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에는 도서관시스템이 자동화로 변화되는 시점으로 전산화작업을 착수하였으며, 이후 학술정보시스템(PULIP)을 가동하였고 멀티미디어실을 개장하는 등 전산화 추진사업으로 인한 시설장비에 관한 기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볼 때 1990년대에는 도서관의 자료관리 및 시스템이 전산화로 탈바꿈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건의함 설치, 흡연근절, 열람실 시간 연장, 열람실 자리독점, 사물함, 의자교체 등 이용자 편의와 관련한 기사가 많이 실린 것으로 보아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기였다고도 할 수 있다.

2000년대에는 전자정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 학술DB를 교외에서 접속할 수 있는 솔루션을 도입하였으며, WDL(Wireless Digital Library)을 구축하였고, dCollection사업 활성화 시범교로 선정되었다. 이후 좌석배정시스템을 설치하였고, 전산화시스템인 XMLAS를 도입하였으며, 도서관 출입관리시스템과 자동반납기를 설치하는 등 첨단 통합형 전자도서관시스템을 구현

하였다. 이러한 전자도서관 구현과 더불어 도서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에 관한 기사도 많이 실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도서분류법을 통합하였고, 휴식공간을 확충하였으며, 새로운 의자 교체, 모바일캠퍼스 구축, 독서치료프로그램 실시, 24시간 도서반납, 자료실 공휴일 개방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P대학교에서 발행한 대학신문에서 도서관과 관련하여 보도된 기사 전체를 조사하여 주요기사의 내용과 업무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는 냉철한 자세로 스스로의 반성을 통해 현실을 직시하며,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바람직한 도서관상을 정립하기 위한 대학도서관 운영이나 장기발전계획 등의 참고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